

[2021 백상]신하균·김소연, TV부문 남녀 최우수연기상

등록 2021.05.14 00:11:48



[서울=뉴스시스]최진석 기자 = 신하균이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'제57회 백상예술대상'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. 2021.05.13. (사진=백상예술대상 사무국 제공) photo@newsis.com

[서울=뉴스시스]이재훈 기자 = 배우 신하균과 김소연이 '제57회 백상예술대상'에서 TV부문 남녀 최우수 연기상을 받았다.

신하균과 김소연은 13일 경기 고양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이 시상식에서 각각 JTBC 드라마 '괴물'과 SBS TV 드라마 '펜트하우스'로 남녀 최우수 연기상을 거머쥐었다.

신하균은 '괴물'에서 괴물을 잡기 위해 괴물이 된 경찰 '이동식'으로 호평을 들었다. 그는 "두렵고 무섭고 떨리지만 용기를 가지고 더 많이 고민해서 재미난 작품 만들겠다"고 다짐했다.

김소연은 '펜트하우스'에서 압도적인 악녀 천서진 역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. 그녀는 "이 상을 받아도 될 지 모르겠다. '펜트하우스3'를 열심히 찍고 있다. (남편인) 이상우 씨와 가족들에게 영광을 돌리겠다"고 울먹였다.



[서울=뉴스시스]최진석 기자 = 김소연이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'제57회 백상예술대상'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. 2021.05.13. (사진=백상예술대상 사무국 제공) photo@newsis.com
한편, 백상예술대상은 TV·영화·연극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 종합예술시상식이다. JTBC·JTBC2·JTBC4에서 생중계한다. 코로나 19 방역 지침으로, 무관중으로 치러졌다. 신동엽, 배수지가 MC를 맡았다.

©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@newsis.com

Copyright © NEWSIS.COM,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